

이 교재의 사용법과 주의점, 학습할 때 필요한 것

여기부터는 이 교재를 사용할 때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 책이나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만의 답과 생각을 찾아낸다

이 책은 올바른 지식이나 유일한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답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찾아내 봅시다. 자신이 찾은 답이 다른 사람의 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워봅시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와 같이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머릿속에는 없던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이 목표로 하는 학습은 ‘주체적’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준다, 그것을 외운다,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수업을 한다와 같은 사용법을 위해서라면 이 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 속에는 그러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사용할 사람은 ‘정확한 답을 알려준다’라는 교육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선생님 역할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학습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가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잘 만들어 목표를 향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결코 지식을 주입하지 마세요. 일찍이 브라질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했듯이 학습하는 사람은 ‘빈 저금통’이 아니며 교사도 ‘지식이라는 돈’을 ‘빈 저금통’에 넣는 ‘은행원’이 아닙니다. 학습하는 사람은 하나의 ‘주체적,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 자신의 생각과 의견뿐만이 아닌 다른 이의 생각과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생각한다

이 책 속에 적혀 있는 에피소드에는 답이 2 가지 이상 있거나 아예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생각했을 때 의견이나 감상이 서로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의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립은 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일단 받아들이고 뒤 조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뒤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서 출발해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넓힌다

이 책 속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딱 맞는 주제도 있겠지만 별로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이 없는 내용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제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접근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자신의 에피소드’라고 상상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허구여도 괜찮으니 ‘만약에 내가’, ‘만약 나의 가족이’ 등과 같이 자신과의 접점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새롭게 깨닫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학습자를 위해 만든 교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

이 책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학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업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 혼자서 학습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어 학교나 대학 등의 일본어 수업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어 수업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 학생과 일본 이외의 나라 학생이 함께 배우는 수업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많은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과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해도 딱히 새로운 발견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서 소통해 보세요.

-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확실히 듣는다
- 들으면서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거나 호응하고 짧은 발언을 하며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한다
- 곧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다
-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거나 의문점 등을 질문한다
-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의견이 다른 부분을 서로 확인한다
- 의견이 다를 때에는 왜 다른지 생각해 본다
- 자신의 의견을 알기 쉽게 말한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도 설명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러한 ‘대화’ 는 다툼이나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승패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 속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꺼려지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같은 ‘자리’ 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시를 들어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나는 종교를 주제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교사만의 문제도 다른 학습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그 발언을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자리’ 에 있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면 그 ‘자리’ 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개인이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주제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주제가 종교일 때는 그 사람만 자리를 벗어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라서 함께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나는 종교를 주제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발언을 일단 받아들인 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자리 (= 사회)’ 에 있는 모두가 ‘대화’ 를 통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받아들인다’ 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상대에 맞춰서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함께 생각한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실 안에서 수강생들 간의 대화가 의논을 넘어서서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또한 주제적인 학습이 어느

새 강제적인 학습과 획일적인 학습이 되지 않도록 같은 ‘대화의 장’ 에서 학습하고 있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화의 장’ 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있는 모두가 함께 그 ‘장’ 을 만들고 발전시켜 보세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념과 사용법을 연결하는 6 가지 포인트’ 에 쓴 것처럼 ‘학습자’ vs. ‘교사’ 라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업에서의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습하는 입장의 사람과 대등한 위치에서 배움의 장이라고 하는 사회에 참가하여 함께 배워갑시다.

이 책은 그러한 힘을 키우는 책입니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지금까지의 수업이었다면 ‘문제점’ 이라 생각되었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문제점’ 을 교과서에는 없는 ‘실제 사회에서의 실용적인 응용문제’ 로 생각하고 곧장 교과서에서 벗어나 눈앞의 진짜 문제를 모두와 대화하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배워가며 습득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개의 과 사용법

그러면 하나의 과 속에서 무엇을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같으므로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봐 주세요.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과에서 몇 가지의 활동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학습합니다. 과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찾거나 수집하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글로 써서 정리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아래의 () 속에 있는 ‘발전 섹션’ 은 선택 사항입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의욕과 학습 시간에 맞춰 정해 주세요.

내 안의 지식이나 가치관 등을 확인한다 → 자료를 읽는다 → 생각한다 → 대화한다 → 학습을 깊고 넓게 한다
→ (임의 : 학습을 발전시킨다) →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본다 →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평가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크기로 진행됩니다. 혼자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이와 짝이나 그룹을 만들어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활동의 크기를 점점 키워 마지막에는 반 전체가 서로 대화하여 생각합니다. 각각의 활동에는 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혼자 할 것인지, 둘이서 할 것인지, 그룹으로 할 것인지, 반 전체가 할 것인지, 활동의 크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룹 크기는 실제로 활동할 때의 인원수에 맞춰서 생각해 주세요. 또한 반의 인원수나 시간 등의 상황에 따라 특정 크기의 활동을 생략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주세요. 많은 활동은 ‘함께 대화하자’ 와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 생각하고 결정해 주세요.

이와 같이 어느 과의 활동에도 ‘활동 크기’ 와 ‘활동 유형’ 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배치에 참고해 주세요.

이 책은 ‘대화’ 를 중시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대화에 대한 참여 자세가 다양하게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대화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화에서 멀어져서 혼자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참가할 권리’ 와 마찬가지로 ‘이탈할 권리’ 도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この課ですること】 [이 과에서 해야 할 일]

Pada bagian awal tertulis hal yang akan dilakukan pada seksi itu. Hal itu seperti target tujuan. Setiap seksi memaparkan 4-6 target tujuan. Target-target tujuan tersebut terbagi menjadi dua jenis. Yang pertama mengungkap "bagaimana cara membaca materi" seperti artikel surat kabar, poster, bagan. Yang kedua adalah tentang "apa yang dilakukan sebagai pendidikan kewarganegaraan demokratis" yang telah dijelaskan beberapa kali. Keduanya juga dibagi menurut ikon Teks dan EDC (=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Pendidikan Kewarganegaraan Demokratis).

【〇〇する前に】 [〇〇하기 전에]

Selanjutnya adalah mengidentifikasi pengetahuan dan nilai-nilai Anda sendiri. Sambil menjawab pertanyaan-pertanyaan sederhana, ingatlah kembali berbagai pengetahuan dan pengalaman yang ada di pikiran Anda. Anda dapat berpikir sendiri, secara berpasangan, atau berkelompok. Anda juga dapat membaca atau memeriksa materi-materi sederhana.

【〇〇を読もう】 [〇〇를 읽자]

주된 자료를 읽습니다. 신문 기사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도 있고 포스터나 전단지과 같은 그림을 보거나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림이나 표를 볼 때도 있고 여러 자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에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도표가 함께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보기 위해 2 가지 이상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考えよう】 [생각하자]

This is the step you do after reading. You may be asked to carefully think about what you read, or to research other information while referring to what you read. There will of course be times when you research after thinking, and then think about what you researched. You may be required to do this alone, or in pairs or groups.

【話し合おう】 [대화하자]

‘생각하자’의 섹션 안에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거나 조사한 내용을 짝이나 그룹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해 갑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발표나 월드카페 형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정보를 특설 웹 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해 주세요. 어떤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읽고 생각했을 때,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이 나 기업에 의견을 보내거나 제안을 하거나 신문에 투고하여 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より深く考えよう、より広く考えよう】 [더욱 깊이 생각하자, 더욱 넓게 생각하자]

모든 과에 ‘더욱 깊이 생각하자’ 와 ‘더욱 넓게 생각하자’ 중의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에 따라 둘 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활동에는 공통점도 있으나 ‘더욱 깊이 생각하자’ 는 ‘책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더욱 생각해 보는 활동’, ‘더욱 넓게 생각하자’ 는 ‘생각해 온 구체적인 예시의 주제에서 벗어나 일반론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보는 활동’ 입니다.

【発展】 [발전]

이것도 모든 과에 만들어 두지는 않았으나 더 조사해 보고 싶다, 더 생각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발전적인 활동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해볼까?’,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등은 특설 웹페이지 (<https://www.bonjinsha.com/wp/edc>) 에 있습니다.

【振り返ろう】 [되돌아보자]

생각한 것, 깨달은 것, 생각이 바뀐 것 등을 정리해서 활동 전체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과의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자신의 말로 확실히 정리해서 확인합니다. 질문에 답하거나 노트에 적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되돌아봅니다.

【自分の学びを評価しよう】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자]

정리와 회고가 끝났으면 자기 평가를 합니다. ‘얼마만큼 배웠는지’ 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아주 잘한 것 / 그럭저럭 잘한 것 / 별로 못한 것 / 전혀 못한 것 등을 확인합니다.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과를 배울 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그 과에서 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과를 학습할 때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반영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머리말’ 이 끝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저자의 메시지’ 를 읽어 주세요.